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1. 27.(금) 즉시배포 배포 2026. 11. 27.(금)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한국산업은행, 「KDB 따뜻한 동행」 통해 자살유족 가정에 3천만원 기부금 전달

- 한국산업은행 후원금으로 부모와 사별한 아동·청소년 가정의 건강·심리·교육·생계 지원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 이하 “재단”)은 한국산업은행(회장 박상진, 이하 “산은”)으로부터 3천만 원을 기부받아, 자살로 부모와 사별한 아동·청소년 가정 16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11월 27일(금) 한국산업은행 회의실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부금은 산은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KDB 따뜻한 동행」을 통해 마련됐으며, 재단은 이 기부금을 활용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살유족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재단은 전국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 가구를 모집하고, 내·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16가구를 선정했다. 지원금은 건강관리비, 심리치료비, 교육비, 생계비로 사용된다.

재단 정윤순 이사장은 “자살유족 아동·청소년 가정을 위한 지원에 뜻을 함께해 주신 한국산업은행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자살유족 아동·청소년 대상‘KDB 따뜻한 동행’지원개요
2. 기부금 전달식 사진

담당 부서	인식개선사업부 민관협력팀	책임자	부 장	위준영 (02-3706-0410)
		담당자	팀 장	김은영 (02-3706-0451)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위한 언론인의 약속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자살유족 아동·청소년 대상 'KDB 따뜻한 동행' 지원개요**

□ 추진배경

○ 자살로 부모를 잃은 아동·청소년 가정은 한부모가족으로서 경제적 어려움, 양육 부담, 사회적 고립, 심리·정서적 문제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KDB 따뜻한 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살유족 아동·청소년 가정을 발굴·지원함

□ 추진개요

○ **(사 업 명)** 2026년 자살유족 아동·청소년 대상 한국산업은행「KDB 따뜻한 동행」

○ **(지원대상)** 자살유족 아동·청소년 16가구

○ **(지원내용)** 건강관리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교육비

○ **(지원목적)** 부모의 자살로 남겨진 자녀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및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붙임2 **기부금 전달식 사진**



26년 11월 27일 한국산업은행 회의실에서 한국산업은행 사회공헌팀 팀장(좌)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민관협력팀 팀장(우)이 기부금 전달 및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산업은행 사회공헌팀 팀장,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민관협력팀 팀장

참고 **자살 사건 보도 시 안내 문구 관련 언론 협조 요청 사항**

1.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의 일환으로 **자살 사건 보도 과정**에서, **긴급도움 요청**과 관련하여 삽입할 수 있는 '**안내 문구**'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여** 각 **언론사 내부에서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내 문구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준수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1.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4.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참고> QR코드를 통해 종이 없는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으로 연결되며, PDF 형식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